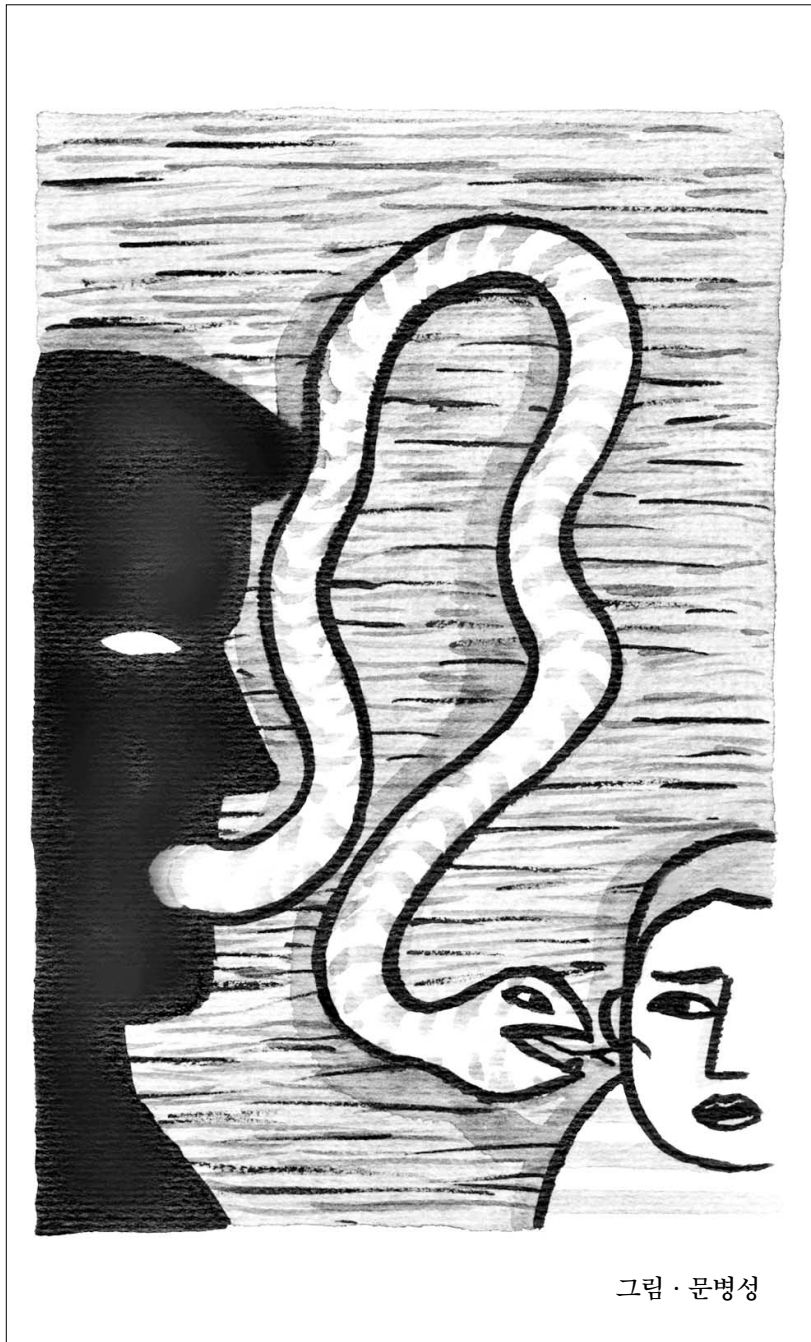


# 내가 변해야... (상)

원혜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난 어려서부터 성격이 예민하고 예민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눈치를 보고), 잘못되지 않을까 먼저 겁먹는 정말 스스로를 무던히도 괴롭히는 성격인 것이다.

커서 사회인이 되어 현재의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도 이런 나를 버려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자라면서 부모님께 대놓고 반항을 해본 적도, 말대꾸를 해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표나게 화를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가끔 감정을 표출해보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레 겁먹고 수그러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성격이 좋다고 칭찬해 주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는 전혀 다른 나에 대한 평가인 셈이다.

그런데 작년에 부서를 옮기면서 가정 내 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보다 많은 경험을 위해 형사부에 지원한 것이다.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내 위치가 더 이상 막내가 아닌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중급직이 되면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부라는 특수한 상황은 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내 예민하고 조용한 성격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경찰다 워야 하고 어느 부서에서든지 거뜬히 일을 해낼 자질이 있어야 진정한 경찰인데, 이런 내 성격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다.

처음 이 부서에 와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여러 사람에게 응시시키고자 했고 잘 되어간다는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였다.

경찰근성이 있는 동료들은 서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 동료들이 내성적인 나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자꾸 들으니 기분이 언짢아지고 오기가 생겼다.

이와 때를 같이해 집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 엄마는 때로는 어떤 상처도 보듬어 주는 비단 폭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철옹성처럼 고집스럽게 변하는 그런 분이다.

그날도 그랬다.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의 사정으로 엄마가 며칠 간 오후에 우리 집과와 계실 때였는데, 퇴근 무렵 작은 아이가 열이 많이 나고 아프다는 전화를 하였다. 서둘러 도착해보니 아직은 쌀쌀한 날씨인데 배란다 문을 먼저 닫고, 엄마에게 "도대체 어디가 열이나 아프길래 그래?"라고 물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갑자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몇 차례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셨어!" 하시며 기뻐하시던 모습을 보고 "에이, 조금 오버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부처님은 그렇게 근엄해보일 수가 없었다.

청사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경승실에서 유리창 밖 경치를 보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다시 부처님을 바라보았지만 근엄함은 여전했다. 부처님에게서 아무리 미소를 보려고 해도 미소는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부처님 미소를 찾다가 책꽂이에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정어(正語)와 망어(妄語)>라는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 교수가 쓴 책이었다.

불교에서는 유타리 말에 대한 금계조항이 많으며 서두를 시작할 책에서는 '입으

게닫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래! 묵언 수행은 형편상 어렵지만 정언(正言)과 정행(正行) 수행을 하면서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해보자"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다짐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실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바른 말을 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해보았지만 거친 말투의 버릇이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바르게 행동하자고 되새기고 또 되새겼지만 어느 순간 평상시 관성대로 행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횡수도 늘어났다.

시간이 지나면 자발수록 경승실에서의 다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

## 집 안팎으로 시달리며 지쳐가기 시작 문제의 원인이 내 언행에 있음 알게 돼

도대체 왜 그러는지 영문이나 알자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좋아하시는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가기도 했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난 결혼 이후 처음으로 과거의 철옹성 앞에 대적없이 서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좌절감에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불편한 시간이 지속되면서 집 안팎으로 시달린다는 생각에 나는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엇인가에 기대어 했고, 발걸이 자연히 시경 경승실로 향하게 됐다.

지금도 시경 소속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청사에서 근무하지 않아서인지 모처럼의 방문이 낯설었다.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데 대한 죄의식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때만(예전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을 때) 찾아와 기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감출 수는 없었다.

아무도 없는 경승실에 앉아 있노라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부처님을 바로 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선배가 "오늘은

로 불이(不二)를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동체대비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묵언이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정어가 되어야 하고 최악의 순간에도 악어(惡語)만이라도 피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처음에 무작정 경승실을 찾았을 때는 '무작정 절이라도 하다보면 마음이 출가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뜻밖에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됐다.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찾아내 참회하며 잘못된 길을 고쳐 나가는 노력이 행( 실천)이라는 것을

경승실에 한쪽 후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순간 '지금 이 말과 행동이 적절한 것인가, 아무런 문제는 없는가' 하고 자주 되물곤 했는데, 어느덧 그런 되물음도 생활 속에 파묻혀버린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직장에서 직원들이 내가 한 말로 나를 공격한다면 그건 내가 한 말의 내용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동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벌여 상대방을 흥분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됐다.

비록 경승실에서의 다짐이 생활 속에 묻혀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사실 정어와 정행을 하겠다고 실천에 나서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말을 하기 전 '바른 말'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옳았다고 판단한 말이라도 조금 다르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 말이 때에 따라서는 '바른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하여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spark@buddhapia.com

##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들에게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구입안내

- 구성: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상권권 총 8,000원 (납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주문및문의

- 구성: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 1팀
- 과년도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개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 탈종공고

- 사찰명: 죽장사
- 주 소: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 주 지: 명호(한소연)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직인무효공고

- 사찰명: 죽장사
- 주 소: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 주 지: 명호(한소연)

대한불교 조계종 죽장사 주지

위 사찰의 주지 직인은

2006년 7월20일 이후로

무효임을 공고 합니다.

## 공 고

- 성명 및 범명: 배 정환(혜인) ● 생년월일: 1955년 2월 20일(만51세)
- 주 소: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95-5번지 까르띠움 오피스텔 720호
- 사찰 소재지: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곡상리(대한불교 정수사) ● 승적번호: 대한불교 조계종 0183-48호
- 득 도: 1982년 9월 8일 해인사에서 원법 스님을 은사로 득도.
- 사미계: 1983년 10월 15일 범어사 단일계단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비구계: 1989년 9월 18일 범어사 단일계단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해암 스님을 범사로 비구계 수지.
- 법 계: 1995년 9월 24일 통도사에서 중등법계 풀수.
- 안 거: 1988년 8월 26일 범어사에서 수선 하안거 이래 3안거 성만.

대한불교 원효종은 상기인이 본종에 제출한 승적 서류를 대한불교 조계종에 의뢰한 바, 2006년 7월 10일 승적 없음을 통보받았고, 상기인이 본종에 제출한 각서와 입종 서류 또한 모두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본종은 2006년 7월 15일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해 규정원법 제 4장 18조에 의거 그 직책(규정원장)을 해임하고, 또한 중법(상법위원회) 제 4장 10조 1항, 2항, 3항, 4항, 5항, 7항에 의거 해종 행위 및 가짜 승려임을 공고한다. 향후 각 종단 및 사부대중께서는 위 자의 거짓 승려 행세에 현혹 되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불기 2550년 7월 15일

대한불교 원효종 중앙총회

##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바, 이런 어려움을 딛고 종단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몇몇 스님들의 노고로, (2005비합278) 2005년 12월 14일자로 김대관(벽송)스님을 임시 총정으로 정함에 따라 종단에 안정을 되찾았다. 또한 종헌·종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4월 4일 총회를 구성하여 향운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인준하였고, 2006년 6월 12일 임시총회에서 종정추대위가 구성 되었으므로, 새로운 총정이 추대되는 날 까지 종법(종정의 추대조례) 제8조에 의거 총무원장이 종정서리로서 직무대행을 공고 함

불기 2550(2006)년 7월 15일

대한불교원효종 종정추대위원 일동